점프·백턴·정지, 그리고 180도 회전

스릴 만점 '묘기의 세상'

■ 광주 자전거 묘기 동호회 '샤크'

지난 28일 밤 광주시 남구 철로공원. 안장이 없는 자전거, 일반 자전거보다 작으면서 타이어는 굵은 자전거를 타고 정지동작을 손보이자 금새 사람들이 모여든다.

장소가 넓지는 않지만 자전거를 이용한 묘기가 펼쳐지자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오고 길을 가던 행인들로 발걸음을 멈추고 신기한 광경에 빠져든다.

주인공은 자전거 묘기 동호회 '샤크'. 지난 2000년 창단해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는 동호인 수는 950여명에 이르고, 실제 얼굴을 보며 만나는 동호인은 50여명.

하지만 바쁜 일상과 고난도 테크닉이 필요한 자전거 묘기의 특수성 때문에 10~15명이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 이렇다할 대회가 없어서 성적을 매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샤크'는 전국 자전거 묘기 동호인클럽에서 상위클래스에 속한다.

이강철 회장과 이형근 부팀장, 김성훈(22), 손병수(30)씨등 4명은 샤크의 주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남구 철로공원에 모여 1시간여 정도 자전거 묘기 공연을 하면서 기량을 연마한다. 다른 회원들은 매월 3일 정기모임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 습득을 한다.

이강철(25) 회장은 "자전거 묘기는 아직 우리나라에 보급이 많이 되지 않은데다 광주는 특히 자전거 묘기에 대해 저변확대가 안돼 활동이 어렵다"며 "되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공연을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전거 묘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안장이 없는 자전거를 이용해 묘기를 부리는 '트라이얼' '스트릿 어반'과 '스트릿 BMX로 나뉜다. 스트릿 BMX는 바퀴 사이즈가 20인치와 26인치가 있다. 이들 자전거 가격은 150만원~200여만원에 이른다.

트라이얼은 정지된 동작을 주로 한다. 스트릿 어반은 자전거가 진행하면서 장애물을 넘는 묘기를 부린다.

이 회장은 "자전거 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장구를 반드시 갖춰야 하고 기본적으로 근력과 지구력이 필요하다"며 "기본테크닉을 익히는데는 1개월~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자전거 묘기는 핸들에 앉아서 뒤로 타기, 앞바퀴 들고 타기, 앞바퀴에 두 발을 얹고 몸통 돌리기, 비스듬히 누운 자전거에 올라 타고 두 손 올리기, 기운 자전거를 타고 돌기, 자전거 뒷바퀴와 뒷발을 동시에 들고 타기 등 갖가지가 있다.

이날은 협소한 장소로 인해 점프와 백 턴, 정지와 자전거를 탄 채 통통 튀어서 이동하는 기술 등을 선보였다.

이형근(25) 부팀장이 회전기술을 선보이자 어느새 모여든 관람객들이 와! 하는 탄성이 터져나온다.

이 팀장은 경력 7년의 베테랑. 이 팀장은 "자전거 묘기는 스트레스 해소와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기술을 습득했을 대 얻는 성취감이 어느 스포츠에서 얻을 수 없는 쾌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회원이 자전거로 균형을 잡아 정지동작을 한 뒤 앞바퀴를 들고 뒷바퀴로만 통통 튀어 이동을 한다.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오고 학생들은 핸드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어댄다. 관람객의 반응에 신명이 난 김성훈회원은 자전거 뒷바퀴로만 이동을 한 후 1m높이에서 점프를 해 멋지게 착지를 했다.

이에 질세라 손병수씨가 가장 작은 자전거를 가지고 공중에서 180도 회전해 착지하는 난도 높은 기술을 선보인다.

첫번째 시도가 미진했는지 두번째 세번째 연거푸 시도를 한다. 다섯번째 시도에서 새처럼 공중을 붕 날더니 완벽하게 180도 회전을 한 후 멋드러지게 착지를 한다.

다리나 발목에 충격이 오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성훈 회원은 "자전거가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가 됐고, 타이어가 두꺼운데다 안장에 앉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만 타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다"고 말했다. 샤크의 유일한 홍일점인 김은민(20)회원은 신입회원으로 이제 갓 5개월여가 됐지만 열성을 보이고 있어 정지동작은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창립멤버인 선장곤(34) 회원은 경력 9년으로 고급 난도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 회장은 "아직 국내에 정식 대회가 없어 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꾸준히 기량을 연마해 외국대회에 진출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15명 회원 매일 남구 철로 공원서 기량 연마하며 환상 공연

짜릿한 전율에 심신 단련 … 기본 테크닉 익히는데 1~6개월 걸려

왼쪽부터 손병수, 이강철, 이형근, 김성훈 회원. 샤크의 주축 멤버인 이들은 매일 광주 남구 철로공원에서 공연을 하며 '자전거 묘기' 저변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